

2015년 교구장 사목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교구의 형제자매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교구는 지난 2012년 폐막한 제2차 교구 시노드에서 ‘젊은이 복음화’, ‘새 시대 선교’,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교구와 대리구 및 사제생활’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몇 년 동안 이 결의들을 교구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정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해마다 시노드의 결의들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실행하는 것은 한 해씩 훑어보고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 안에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새 시대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도모함으로써 변화하는 세상의 요청에 부응하는 선교와 선교의 뿌리이자 정점인 거룩한 전례의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소외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고 섬기는 데 우리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이를 당신과 똑같이 여기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행위인 것입니다(제2차 교구 시노드 교구장 교서 『새 시대, 새 복음화』 35항 참조).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가장 작은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 뵙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이로서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복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 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98항; 『새 시대, 새 복음화』 35항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의 문화’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실천은 영적 관심이 없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위세 부리는 배품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하느님의 우정과 강복과 말씀, 성사 거행,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나누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복음의 기쁨』 200항 참조).



사제들은 본당이나 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이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공동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나누고 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새 시대, 새 복음화』 31항 참조). 특히 본당사목구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교우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신앙행위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가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는 부조리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 외에도 문화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또 장애나 고령으로 인한 소외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본당의 사목계획과 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당이 지역 사회에 열린 공동체가 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리구와 지역은 조정과 협력의 창구가 되어 본당사목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순 저금통’과 같은 자선을 위한 공동노력과 자원의 분배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본당이나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적 가난과 사랑을 실천할 직접적인 기회가 많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가족으로 모신다는 생각으로 사랑 실천의 실제적인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아내고, 가정에

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물질적인 소유를 최선으로 여기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는 기쁨을 배우기를 권합니다.

지난 8월 방한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앞서 인용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나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며 다른 이를 향하여 쏟는 사랑의 관심”(199항)을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작은이들을 형제라 부르시며 당신과 동일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마태 25,31~46 참조)의 메아리이며, 우리가 소외된 이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요약이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로 퍼져나가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4년 11월 30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3월 21일 타대오



“깨어 있어라” (마르13,33)

손무진 사도 요한 신부 | 성요셉본당 주임

대림 첫 주일입니다. ‘깨어 지켜라’(마르13,33) 이 말씀이 복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으나(1독서, 이사63,17)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친 아드님을 보내 시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 시켜주시고, 아드님과 친교를 맺게 하셨습니다(2독서, 1코린1,9).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아드님을 “깨어 지키는 자”로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복음, 마르 13,33).

대림은 역사의 시간에 오셨던 예수님을 회상 하면서 또한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의 구름을 타고’(마태 24,30) 영광의 하느님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전례 안에서 이중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셨으며 마지막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중간시기에 어떻게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는 생활이 됩시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마르 14, 38)고 하셨습니다. 기도생활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는 식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문지기’가 깨어 준비하게 되며, 내가 받은 ‘생명의 은총’을 죄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읽고 성사생활에 참여합시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탁월한 지식”(필립 3,6)을 얻도록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징들입니다. 교회는 성사거행을 전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참여와 성체조배를 적극적으로 생활화 합시다.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합시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요한 4,20). 이웃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또한 자선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2015년 우리 교구의 교구장 사목 지침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약한 세상과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216항).

대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성취 할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끝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희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첫 번째 강생과 함께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 대림시기를 기쁨 가운데 시작합시다. FIAT!

†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이사 63,16ㄹ-17,19ㄹ; 64,2ㄹ-7 **제2독서** 1코린 1,3-9 **복 음** 마르 13,33-37

화답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사목단상

너무 비싸요~

박상용 사도 요한 신부 | 교구 사목국 차장



외국 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단일민족임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살다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 외에는 모두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감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커다란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다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하소연할 방법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마저도 못 받으면서 ‘그런 혜택쯤은 없어도 괜찮아!’라며 스스로 위로하며 설움을 삼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그곳에 도착하면 미국 메리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언어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과정이 고작 5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학원에서 배우고 돌아와 곧바로 본당에서 현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제라 하더라도 교우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결코

처음부터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제대로 말 할 줄 몰라 본당 꼬맹이한테서도 무시당하는 속상함을 겪을 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언어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가급적 많은 말을 많이 해야 빨리 배울 수 있기에 음식점에 가서 주문도 하고 버스도 타보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 더듬더듬 이야기 하고, 몰라도 알아들은 척하며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을 사러 시장에 가서 배운 말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거기다 재래시장에 가면 바가지를 씌운다는 말을 들었기에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흥정을 해야 하는데 흥정을 위한 첫 마디가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일단 “너무 비싸요!” 하고 나서 흥정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이나 사제로서 충고를 할 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현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등을 위해서,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매일 같이 기꺼이 사전을 뒤적이며 공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고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수고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봉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외모와 눈에 띄는 자신감! 육상선수이자 모델, 그리고 영화배우로까지 활동한 에이미 멀린스, 그녀는 남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없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으로 1세 때 결국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절망이라 불릴 수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명랑함을 잃지 않고, 두 의족으로 걷고 또 뛰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 육상 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지방시 수석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에이미는 의족만으로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냈고, 그녀의 화려한 타이틀에 사람들

은 궁금해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에이미는 대답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

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말할 때, 에이미 멀린스는 “잠재력을 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금주의 성인

11월 30일	성 안드레아(사도, 순교자, 1세기)
12월 1일	성녀 나탈리아(과부, 순교자, 니코메디아, 304년경), 성녀 칸디다(순교자) 성 아제리코(주교, 베르딩, 521-588년), 성 안사노(순교자, 시에나, 304년) 복자 샤를 드 푸코(신부, 은수자, 1858-1916년), 성 엘리지오(주교, 누아용, 588-660년)
12월 2일	성녀 바울리나(순교자, 256년), 성녀 비비아나(동정 순교자, 4세기경) 성 실바노(주교, 트로아스, 450년), 성 크로마시오(주교, 아퀼레이아, 407년)
12월 3일	성 카시아노(순교자, 탕헤르, 298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신부, 선교사, 1506-1552년) 성녀 힐라리아(순교자)
12월 4일	성 마루타(주교, 메소포타미아, 415년경), 성 멜레시오(주교, 폰투스, 295년) 성 세쿰디노(주교, 던슬로글린, 375-447년), 성녀 바르바라(동정 순교자, 306년) 성 안논(주교, 켈른, 1075년), 성 오스문도(주교, 솔즈베리, 1099년) 성 요한(신부, 교회학자, 교부, 다마스쿠스, 650-754년)
12월 5일	성 바소(주교, 순교자, 니스, 250년), 성 사바(수도원장, 팔레스티나, 439-532년) 성녀 크리스티나(수녀, 마크게이트, 1097-1160년), 성 펠리노(주교, 순교자, 361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주교, 미라, 270-341년경), 성녀 디오니시아(증거자, 484년) 성녀 레온시아(증거자, 484년)

『봉헌 생활의 해』 개막

교황성하께서는 2014년 11월 30일(일)부터 2016년 2월 2일(월)까지를 '봉헌 생활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개막되는 봉헌 생활의 해에 수도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구관구 개막미사 : 2014년 12월 1일(월) 14:00~17:00, **장소**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주례 :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중국 광둥성 사목방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중국 광둥성(광저우, 심천, 홍콩) 내 한인성당을 사목방문하시어 견진성사를 거행하시고 25일(화)에 귀국하셨다.

■ 제6회 교구 성경암송발표대회



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에서 주최한 제6회 교구 성경 암송 발표대회가 11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에서 교구 내 본당 32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가톨릭영화제 순회상영전

일시: 12.5(금)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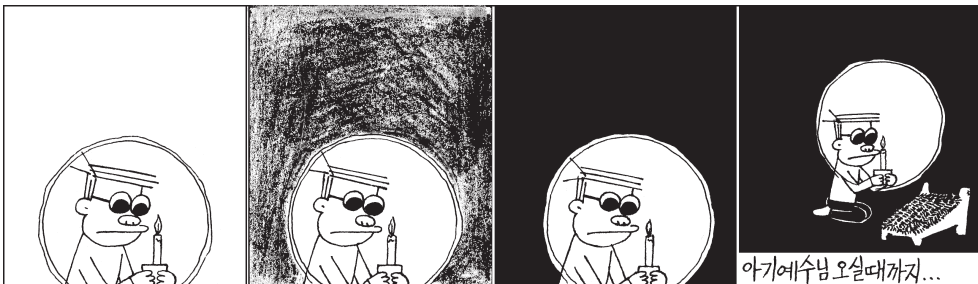
장소: 대명동 대경빌딩 3층 『앞산밑 북카페』

상영작품: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효과』, 가톨릭영화제 독립영화부문 대상 『절경』

대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무료), **문의**: 앞산밑 북카페, 053-622-1900

깨어있어라(마르 13,37)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 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2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2월 6일(토) 10:00 프란치스코능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6일(토) 11:00 대안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12월 6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가정을 위한 대림 피정

일시: 12.13.(토) 13:00~18: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관 나동 대강의실
대상: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
마감: 12.10(수) 17:00까지(선착순 250명)
신청: 250-3114 / Fax: 250-3112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2.5(금) 18:00~7(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빛떼제 감사 음악 피정(연말)

일시: 12.13.(토) 18:00~22:00
대상: 청년, 빛떼제 가족 모두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회비: 1인 5천 원
신청: (010)9056-9005

햇살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2.6(토) 13:00~7(일) 17:00
장소: 용인수지성심교육관
대상: 젊은 미혼 여성 / 회비: 2만 원
준비물: 신약성서,세면도구, (010)9176-1212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수도생활 체험 피정(노장년층)

기간: 12.27(토) 16:00~29(월)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13만 원
입금: 국민은행 608001-04-116050
주최: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3567-6083 입금 후 연락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 피정

중·고·등: 1.17(토)~18(일)
초·등: 1.10(토)~11(일)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교육비: 4만 8천 5백 원/인(간식포함)
접수: (042)584-0654(가족단위 선착순)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간병인 모집

환우들의 따뜻한 손길
되어주실 간병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명(수시) 입회비 없음
문의: 빈첸시오 간병인협회, 428-0057

충주성모학교(시각장애) 산편입학생 모집

교육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순회교육 방문교육
장학혜택, 보조공학기기지원
상담문의: (043)852-1374
<http://chungjusm.sc.kr>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제45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1.6~2.18(3, 5, 6주 선택)
가톨릭계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수업
대·일반: 1.4~2.15(6주or장기 가능)
주관: 마 신부님(Rev. Ber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기간: 2015.3.10(화)~22(일)
주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http://www.terrasanta.kr>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만15~23세 남자, 1년기계가공조립과
정, 00명, 기계가공, CAD/CAM, 자
동화기계, 인성교육, 교육비/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지급, 고검반운영, 방
통고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제,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 출구 (출동로 내당역 맞은편)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피나)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제1회 가톨릭영화제 대구 순화상영회

일시: 12.5(금) 19:00

장소: 대명동 대경빌딩 3층

『앞산밑 북카페』

상영작품: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효과』

가톨릭영화제 독립영화부문 대상 『절경』

대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무료)

행사 | 모임

제26회 대구가톨릭음악원 성 음악 발표회

일시: 12.1(월) 19:30

장소: 아양아트센터

문의: 255-4847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제4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13(토) 18:00 / 14(일) 14:00, 17:00

장소: 대백프라자10층 프라임홀(입장료 1만원)

후원: 매일신문, 가톨릭신문, 대구평화방송, 교구청년국

문의: (010)4509-7016 / (010)9577-7819

12월 화요기회_고리 콘서트

일시: 매주 화 20:00~21:00(5천 원)

장소: 아트센터 고리(남산동신학교 전 200m)

내용: 크리스마스송년음악(12.2), 생활성가(12.9)

크리스마스재즈콘서트(12.16), 포크(12.23)

문의: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010)9577-7819

교육 | 모집

복음의 기쁨 특강 안내

기간: 12.8(월)~12(금) 19:3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김정우·송창현·장동훈 신부,

김근수, 이애령 수녀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10)9544-1838

관덕정 주관 12월 영성특강

일시: 12.6(토) 16:00

강사: 김하중(빈첸시오) 신부

(오블라피 선교수도회)

문의: 관덕정, 254-0151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12.13(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민들레 국수집이야기

강사: 서영남(베드로)대표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채용 | 안내

2015년 해성유치원 교사 채용

위치: 북구 사수동 (베네딕도수녀원내)

모집분야: 유치원정교사, 보조교사: 00명

문의: 313-1100 / (010)8712-3651

신암성당 남자 사무원 채용

자격: 전문대졸 이상 열심한 신자,

35세 이하 남자

신청마감: 12.7(일)

문의: 신암성당, 958-1005

중등학교 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

원서접수: 12.1(월)~9(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조

선목: <http://www.dgsunmok.or.kr>

해은: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문의: 선목 660-5161 / 해은 660-516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경옥, 박해석(요셉),

김애희(엘리사벳)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파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2월 6일(토), 13일(토)

최현철(파비아노) 신부

12월 20일(토), 27일(토)

왜관 수도원 본원장 이석진(그레고리오) 신부

※ 특집 프로그램은 수송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야오 (4일)
※ 출발일 - 1월 5일, 28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매월 불입액이 없는
가톨릭상조
220만, 270만 상품중 선택
24시간 상담전화 **1577-3182**
장례대행/장지보양/묘지이자/묘지조성
장례부장 서경철(라파엘) 010-7799-7836

팍앤신업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팍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유방 · 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 260-7777 (내선 260-7575)
☎ 260-7777 (내선 260-7575)
☎ 260-7777 (내선 260-7575)

분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